



당신의 장난감? 그들도 살아 있다!

애완동물 산업은 해마다 부피가 커져 현재 연간 1조 원의 유망한 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런 문화적, 경제적 영향력을 반영하듯 동물관련 TV 프로그램이 각 방송국마다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났다. 애완전문 잡지의 창간이나 서적의 발간 또한 뒤따르고 있다. 하지만 TV 오락 프로그램에 나오는 동물을 보듯이 단지 인간의 살아 있는 장난감 정도로만 여기는 시각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래서인지 대다수 동물관련 책은 실용서로 분류되어 있다. 인형 같은 예쁜 사진과 상품소개와 같은 견종 소개들 일색이다. 그것이 애호가들의 기호엔 얼마나 맞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이기적이고 편협한 기호에 맞춰 동물을 재단하는 역기능을 가져왔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핵가족과 독신생활이 일반화되면서 애완동물이 가족의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심리학적으로 애완동물은 정서적인 안정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그러한 사회적인 현상을 반영하듯 제2의 가족처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의 주관을 가진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 고양이 동호회 회장이 직접 쓴 《고양이라서 다행이야》(시지락)도 그래서 눈에 띈다. 두 명의 고양이 애호가들이 고양이와 동거(?)하면서 느꼈던 단상들을 가벼운 필치로 적어 내었다. 신변잡기적인 부분이 없지 않으나 동물을 소유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관점은 신선하다. 어느덧 인간을 대신해 현대인의 고독을 덜어주는 대체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동물을 철학적, 실존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책들도 적지 않다. 프랑스의 소설가 로제 그로니에의 《내가 사랑했던 개, 올리시즈》(현대문학)에서는 인간과 개의 관계를 통해 인간의 세상을 통찰해 본다. 인간과 개 사이의 신비스러운 친화력, 세계적인 문호들의 생활과 작품 속에서 잊을 수 없는 역할을 한 여러 종류의 개들에 대한 심미적인 관찰을 담고 있다.

또 인간과 다름없는 인격체로 간주하고 인간과 다름없이 험한 생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 초점을 맞춘 시튼의 동물기 역시 수작이다. 최근 《쫓기는 동물들의 생애》와 《회색곰 왕의 삶》(지호), 두 권이 연달아 발간되었다. 시튼은 등장하는 모든 동물에 이름을 붙였다. 인간의 관점이 아닌 동물의 개성에 맞는 이름을 말이다.

최근 발간된 동물관련 서적들 중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동물학 분야에서도 낮은 신비동물학에 대한 이야기인 《그래도 그들은 살아 있다》(생각의나무)이다. 미지의 동물을 찾아가려는 시도는 기존의 동물학에 대한 반작용일 수 있다. 인간이 발견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과학 너머에 남겨져 있는 '신비동물학'은 인간에게 자세를 낮추는 법을 배우라고 말한다.

출판계에 쏟아지고 있는 동물에 대한 관심은 출판시장이 그동안 도외시했던 소재를 출판 아이템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또 거대담론이 가치를 바래가고 있는 시대에 미시적인 부분에 눈을 돌리는 소량 다품종 판매 기법의 실험이라고 할 수도 있다. ■